

안태석, 장선숙 선교사 5 월 기도제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 자라'(계 4:8)

지난주 저녁쯤에 교인 중 말기 암 환자인 닛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닛차의 딸, '땡과'가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증상이 의심된다고 딸이 무서워서 계속 전화하며 울고있다고 합니다. 또 본인도 병원을 가야하는데 비가 와서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부터 안전 지역이던 태국도 4 월초 신년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로 인해 전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저희들이 있는 딱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교회에서도 청년 1 명이 확진 되어 병원에 치료중입니다. 저희들이 닛차를 병원으로 차로 데려가면서 닛차는 딸 '땡과'가 너무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땡과'는 하나님을 모르니 걱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저희로 하여금 죽음을 아주 가깝게 느끼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얼마만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 나는 내가 돌아갈 곳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너무 오랜만에 내가 돌아갈 그 나라에 대해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놀란 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주저앉을 것처럼 이 땅에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감사 제목>

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 주심에 감사, 한주간 웹 선교사 기도회를 가지게 해 주셔서 감사, 신학교 인턴 "깨오"가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심에 감사, 신입 선교사 두 가정이 딱 지역에 잠시 머무는데 섬길 기회를 주심에 감사, 자녀들을 주의 손아래 지켜 주심에 감사, 한 달 동안 풍성하게 채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지역마을 어린이 전도 >



<주일학교 학생 심방 >

<기도 제목>

1. 은혜: 태국은 신년명절후인 4 월 중순부터 매일 약 2,000 여명의 감염자가 나오며, 딱 시내에도 매일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결국 정부의 권고로 예배가 4 월중순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도울지 지혜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2. 딱교회: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저희들이 교회운영위원 4 명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나누어 전화로 심방하며 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하는 방법이라서 운영위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는 토요일마다 집집마다 공과 공부를 나누어 주면서 얼굴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도우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사역자: 신학교 4 학년인 '깨오'가 딱교회에서 10 개월 사역 실습하러 왔습니다. 깨오는 산족으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출신으로, 사역에 대한 부르심보다 선배들을 따라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큰 부담으로 다가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마음으로 품어 주고 잘 가르치고 도와주며 하는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깐'은 기술대학 딱에 있는 2 년 졸업 후 사역자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고향 집에 계신 노부모님과 몸이 아픈 형님이 걱정이 앞섭니다. 한걸음 한걸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화 : 070 8251 0151(인터넷폰) / ++66 845 307 544(태국)

이 멜 : taeseok77@hanmail.net/ ~@gmail.com / 카 톡 ID : Simplelifepeter

빌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